

室內造景 活性化를 위한 環境設計에 관한 研究

-事務室 빌딩의 아트리움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Design for an Activity of Interior Landscape Architecture - centred on the Atrium of Office Building -

*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최경옥* · 방광자** · 이진희**

* Ph. D course, Graduate Sangmyung Univ.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

Choi, Kyoung Ok* · Bang, Kwang Ja** · Lee, Jin Hee**

I. 서 론

사무실 조경은 1960년대 후반 직장여성들이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애호하는 식물들을 사무실로 가져오는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직장여성들의 태도는 어렵잖은 개념이었지만 회사의 경제적 이익으로 평가되었고, 1982년 버팔로조직(BOSTI)에 의해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자생수종을 중심으로 교보문고에 실내조경공간이 조성되면서 사무실공간에 식물을 도입하여 자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직장인들에게 업무공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볼 때 바람직한 추세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실내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무실 빌딩에 조성된 실내조경공간(Atrium)의 역할이 높아지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조경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실 빌딩에 조성되어 있는 실내조경을 중심으로 이용목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 공간을 상용적으로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실내조경공간(Atrium)에 대한 인지도, 실내조경 공간에 대한 시각적·심리적·물리적 요구도를 파악하여 실내조경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설계대안 및 설계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Office Building에 조성되어 있는 실내조경공간의 활성화에 대한 설계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설계의도 및 이용목적에 기초한 유형을 분류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내식물의 생육환경,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내조경에 대한 인지도, 도입필요성, 효과, 만족도, 이용행태, 실내정원의 물리적 구성요건 등을 파악하여 유형별 특성을 비교·평가하였다.

현장조사기간은 1998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서울에 소재하며 실내조경이 조성된 고층빌딩을 중심으로 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은 2년이상 근무한 정식직원으로 각 유형별로 60명씩 총 180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의 충별분포는 조사결과 지하 18.1%, 1~10층 40.3%, 11~20층 40.2%, 20층이상 1.4%로 구성되었다.

총 210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80매의 설문이 최종분석치로 사용되었다. 분석은 SA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실내조경공간은 설계의도 및 이용목적을 바탕으로 감상형, 휴식형, 복합형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감상형은 휴식시설이 정원내에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간으로 이용자는 실내조경공간 밖에서 감상을 하거나 그 공간을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용행태는 감상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고층빌딩으로는 LG twin Building, POSCO를 들 수 있다.

복합형은 정원 내에 벤춰나 탁자 등 적극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벤춰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플랜터(Planter)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용행태는 실내조경공간 밖에서 감상을 하거나 실내조경 공간을 통과하며, 일부 이용자는 플랜터(Planter)에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형에 해당하는 고층빌딩으로는 농심본점, 제일은행본점, 교보빌딩을 들 수 있다.

휴식형은 정원내에 벤춰, 플랜터, 탁자 등의 다양한 휴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거나 벤чу에 앉아서 적극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빌딩으로는 한화증권본점, 담배인삼공사 등을 들 수 있다.

2) 실내조경의 도입 필요성

전체적으로 '실내공간에 실내조경공간이 도입되기를 원한다'가 85.3 %로 나타나 실내조경의 도입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분전환과 스트레스 해소 42.3 %,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20.1 %, 동료들과의 대화 10.1 %, 실내공기 정화 6.7 % 순으로 나타나 사무실 공간에서의 실내조경의 도입은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시각적 즐거움을 갖는 일차적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면서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의 참여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실내조경의 효과

실내조경공간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휴식형 실내조경공간은 "기분전환에 도움이 된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감상형과 복합형 (감상과 휴식을 겸한 형태)은 '회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한다'가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4) 실내조경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실내조경공간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에 감상형 36 %, 복합형 53.6 %, 휴식형 58.1 %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보통이다"에 감상형 50.8 %, 복합형 34.5 %, 휴식형 32.3 %로 응답되어 대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 실내조경공간에 만족감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감상형의 경우 이용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욕구수렴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휴식공간으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실내조경공간에 대한 이용형태

실내조경공간에 대한 이용률은 유형에 관계없이 1주 2~3회 이용이 가장 많았다. 이용목적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상형은 시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29.5 %, 기분전환과 스트레스해소 24.6 %,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19.9 %, 동료들과의 대화 및 휴식 16.4 %, 실내공기정화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형은 기분전환과 스트레스해소 46.6 %,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22.4 %, 시각적 즐거움 13.8 %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식형은 복합형과 같은 순서로 나타났으나 기분전환과 스트레스해소를 위해 이용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67.7 %).

이용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12시 ~14시) 80 % 이상으로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이용시간은 휴식형의 30분정도에 비해 감상형은 10분 정도로 나타나 휴식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보다 이용시간이 짧게 나타났다.